취임인사

시하가 춘지절에! 각시도 지부장및 각급 분사무소장 그리고 모든 회원님들께서는 춘체금안하옵고 가내에 두루 행운이 더하기를 기원합니다. 지난 3월31일 협회제 19차 정기총회에서 여러 모로 부족한 본인을 제 8대회장으로 선임하여주신 뜨거운 성원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이제 여러분께서 맡겨주신 중임을 저의 의무와 보람으로 받은 삶고 소임을 완수하는데 20년의 생약업계 종사경험과 현실을 연계적으로 잘 조화하여 회세신장과 생산회원 권익보호및 소득증대에 봉사할 각오를 새롭게 하며 총회에서 말씀드린 제 약속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 그 결실을 얻는데 최선을 다하겠아오니 여러회원님들의 변함없는 협조와 편달을 당부하여마지 않습니다.

우선 본인이 부임초느낀 몇가지 당면과제를 말씀올리면, 첫째, 중앙공판장 활성화문제는 공판장을 인수할때까지 시간적 공간이 있기 때문에 진전에 따라 알차고 부합된 대책을 강구해나갈 것이며 둘째, 대부분 결원상태에 있는 임원단의 선임 및 신이사회의 구성문제는 본인에게 일임된 사항이지만 기성조직망속에 나름대로 지역적인배려 또는 활동력, 인품등 제의견을 취합하여 가급적 인화에 따른 중점을 두고 새흐름에 따른 구성을 시도할 생각이며 세째, 산하지부및 분사무소에 대한 기성조직망을 최대한 살리면서 참신하고 발전적인 재정비도 점진적으로 시도해볼 계획으로 있읍니다.

네째, 전대에 마무리못한 회원권익보호를 위한 제도문제등도 다방면으로 힘을 기울여 그 해결책을 조기에 발견할수 있도록 계획을 추진하겠읍니다.

수많은 소견을 부임초에 다말씀드릴수는 없고 하여 후일 각지부녹생회등을 통한 순방시로미루기로 하고 지면을 통하여 취임인사와 몇가지 소감을 말씀드리오니 혜양하여 주실것을 당부드립니다.

금년에는 기필코 여러분이 뜻하시는바 사업이 성취되옵기를 기원하면서 취임인사를 가름하고차합니다.

사단법인 한국생약협회
회장 송 경 태

최근 북한이야기

작업도 창작도 무조건 빨리

淨化特輯

북한의 선전영화들을 보면 주민들이 작업하는광경이 나온다. 작업반별로 깃발을 앞세우고 총총걸음치며 흙을 져나르고잽싼 손놀림으로 시멘트를 다지고 있다. 모두가 빠른 속도로 쉴새없이 움직이고 있다. 이러한 작업광경에서 우리는 북한을 규율하는「속도전」의 실상을 역력히 읽을수있으며 속도전에 시달리는 북한주민의 고달픈 삶을 헤아리게 된다.

그러면 오늘의 북한에서 속도전식으로 일하는 노동현장을 묘사한 방송보도를 한번 보자. 『개성시 청년 돌격대 제1중대원들은 수령과 지도자 동지에 대한 뜨거운 충성심을 안고 속도전을 벌여 매일 계획보다 수십미터의 철길을 더 늘이고 있다.』『이곳 협동농장들과 국영농장들에서는 이른 곳마다에 속도전의 불바람을 세차게 일으켜 논두렁짓기 작업을 며칠안으로 끝낼 목표밑에 힘있게 내밀고있다…』실제로 이같은 묘사처럼 모든 노동현장이 속도전식으로 움직여지느나 하는것은 별개 문제로 하더라도 속도전식사업방식은 그들 표현대로 하루를 열흘 맞잡이로 일할것을 요구한다.

물론 이것은 근로자의 노동력을 최대로 짜내려는 목표치로서 표현된것이겠지만 속도전이 강도 높은 노동력동원방식인것만은 틀림없다. 속도전이 본래 전략전술상 필요한 전쟁개념이다. 그러나 오늘날 북한에서는 모든 생산과 건설에서 적용되어야할 사업의 기본방식이 되고 있다. 속도전이 공식적으로 등장한것은 1974년2월부터이지만 속도자체의 강조는 그전에도 있었다. 1950년대에는「천리마속도」니「평양속도」니 하는 것이 있었고 1960년대에는「비날론속도」와「강선속도」라는 것이 있었다. 1970년대에 들어와서 경제계획의 조기달성을 결정함에 따라 속도전은 모든 경제건설과사업방식에서 공식적으로 강도 높은 운동의 형태로 전개되어온 기존의노력동원방식이나 마찬가지다. 그런데도『일단 시작한 일을 전격전·섬멸전으로 해제낌으로써 속도도 높이게 하는 가장우월한 혁명적 전투조직의 원칙』이라고 규정하면서 새로운 것인양 신선감을 주려한다. 어떻게 하면조금이라도 더 노동력을 짜낼까 하는 북한공산주의자의 궁리는 이렇게 기존의 노력동원방식을 새로 포장하여 내놓고 있는 것이다.

더우기 속도전이 강도 높은 노력동원방식이라는 점은 전개방법에서라는 질의 전개방식을 동시에 요구하고 있다는 사실에서 속도전을 통해 종국적으로 충성심까지 요구하기 위해서 속도라는 것도수령과 당에 대한 충성이 깊으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 결정된다고 말한다. 그러나 충성을 앞세워 속도 높이고 일의 질도 향상시키기란 쉬운일은 아니다. 평양—남포간의 고속도로가 속도전식으로 건설되었지만 파손사실이다.

앞에서 말한것처럼 속도전은 경제건설뿐 아니라 모든 사업방식에서적용되는 것이기 때문에예술창작에서조차 이를 요구하고 있다. 1978년에 있었던「1백일전투기간」중 조선예술영화촬영소에서는 1백일 동안에 20여편의 새영화를제작했다고 하며,「꽃파는처녀」라는 가극을 무대에 올렸을 때는 시인들이 며칠동안에 평양을노래한 가사를 30여편이나 작사했다고 자랑한다. 속도라는 것은「더빨리 더높이 더멀리」라는 올림픽경기에서의 구호가상 징하듯이 인간이 바라는 이상이기도 하다. 그러나 복한에서는 수령과 당에 대한 충성이 어느정도깊으냐에 따라 속도가 결정된다고 규정하고 낮이면 날마다 속도를 강조하고 있으니, 북한에서만은 속도가 인간의 보편적인 이상일수가 없는것이다. 〈정화 2000년지 발췌〉

栽培教室

88新規會員을 爲하여

산수유 (山茱萸)

○學 名: Cornus officinalis Sieb et Zucc
○生藥名: 山茱萸(Corni Fructus)
○効 用: 強壯藥

1、性 狀

庭園에 심어서 봄의 先驅者로 觀賞할 수 있는 落葉이 되는 濶葉小喬木이다. 나무의 높이는 3m정도 크며 잎은 어겨(對生) 붙고 달걀꼴 또는 둥근꼴로서 입가에는 잎끝이 날카롭니가 없으며 깨 맥에는 갈색의 잔털이 密生되어있다. 꽃은 3~4월 잎이나 오기전에 결과지끝에 繖形花序의 노랑꽃이 핀다. 10월경에 둥근꼴의 漿質의 붉은 核果가 많이 익은 많이 피지만 落花되고 結實이 되지 않는다. 참고로 말하자면 속담에『산수유는 동리집 주변에심어 煙氣를 풍기지 않으면 열매가 맺지 않는다』는 말이 있다. 그 이유는 일반 果樹중에서도 이 튼봄에 꽃이 피면 霜害를 입어 落花하게 되니 이런 경우에는 새벽에 重油나 나무를 태워 연기를 풍기면 空中의 공기가 교란하여 霜害를 막을수 있다. 山茱萸도 때로는 이른봄에 서리에의한 凍害를 입게 되니 規模的으로 재배할 때는 栽植할 立地條件을 고려하고 防霜에도 노력할 것이다.

2、栽培法

1) 栽培適地

비교적 耐寒性이 강한 식물이지만 우리나라에서는 南部地方의 따뜻하고 햇볕이 잘 쪼이는 곳이 좋고 그렇지 않는 곳에서는 꽃이 잘 되며 특히 이른 봄에 꽃이피어 授粉作用을 하기 때문에 西北風이막힌 傾斜盆地로서 寒波가 없는 곳이 좋을것이다.

2) 種子의 處理

山茱萸 種子는 단단해서 發芽가 늦으므로 다음과 같이 씨뿌리기 전에 처리하는 것이좋다.

㉮擦傷法: 種子 껍질이 단단해서 發芽가 늦으므로 약10배의 •굵은 모래와 섞어서 절구에 씨를 찧거나 그대로 씨 껍질이 얇아져서 水分을 잘 빨아들여 發芽가 빠르다.

㉯搗精法: 처리 목적은 擦傷法과 같지만 그 방법에 있어서 많은 양의 種子라면 보리방아 찧는 정미기에 넣어 몇번이고 搗精하게 되면 단단한껍질이 얇아진다. 이때에주의할것은 核의 殼質이얇아져서 손으로 만지면말랑거리는데 種仁이 상하지 않을 정도로 도정할 것이다.

㉰苗酸處理: 山茱萸씨는 단단하기도 하지만 남질이 있어 흡수를 잘하지 못하므로 發芽가 늦어지니 苗酸에 처리하였다가 播種하면 吸收作用이 빨라져서 發芽가 잘된다.

3) 繁殖 및 育苗

繁殖은 주로 實生繁殖을 하며 꺾꽂이법도 가능하지만 實用化되어 있지 않다. 育苗한 苗圃는 通風이 잘되고 햇볕이잘 쪼이는 東南向의 適濕한 砂質壤土로서 排水가 잘되는 곳이라야 한다. 苗床은 잘 썩은 堆肥, 過石, 깻묵및 草木灰등 적당량을 넣고 갈아서 흙과 잘 섞은 다음 1주일쯤 두었다가 넓이 120~150cm의 두둑을 좀 높이 만들고 흙을 고른 후 撒播로 뿌리거나, 이랑사이 15~18cm로 하여 골을치고 條播한 다음 種子가 보이지 않을 정도로 草木灰를 뿌리고 다시 흙을 채워서 1·5cm정도 덮는다. 그리고 겉흙의 굳어짐과 건조를 막기위하여 짚을 깔아준다.

씨뿌리는 시기는 봄과 가을에 할 수 있으나 種子처리한후 가을에 뿌리는 것이 봄일찍 發芽할 수 있다. 봄에 播種할때는 種子는 처리하지 않고 모래와 섞어서 흙속에 저장하였다가 봄에 처리하여 뿌릴것이다.

봄에는 전조관계를 보아 수시로 관수를 하여주는 것이 發芽가 잘된다. 4월 하순경에 發芽하게 되는데 깔아주었던 짚이 두껍게 깔아졌으면 다소 걷어주고 그대로두는것이 發芽후의 건조를 막을수 있다. 따라서 수시로 除草를 하여준다.

4) 定植

본통 苗圃에서 2年生 苗를 옮겨심는데 1年生 苗도 生育이 좋고 건실한 것은 옮겨심을수 있다. 2年生 苗는 키가 120~150cm정도 된다.

심는 시기는 봄과 가을에 심으나 어느때 심어도 活着이 잘된다.

심는장소는 심기 2~3주일 앞서 미리서 깊이 45cm, 넓이 사방 45cm정도 잘썩은 堆肥나 약간의 過石을섞어서 밑에다 넣고 그위에 흙과 잘 섞어 심는다. 이상과같이 심게되면 처음에는 노력이 들지만 심은후 生育이 잘되어 결과적으로 유리하다. 심는 거리는 3~60cm간격으로 심는것이 좋다.

5) 肥培管理

定植한 후에는 自然形으로 길러간다. 主枝가꺾이는 일이없이 길러서 圓錐形으로 정지할 것이며 가지가密나무가 자라서 間伐할 정도로 그친다. 거름은 매년 가을 또는 이른봄에 바퀴모양 거름주기(輪狀施肥)를 한다. 즉 山茱萸 그루를 중심삼아 主枝의 밑둥의 지름 8~10배 떨어진곳을 파고 堆肥, 人糞尿, 깻묵등을 주고 묻어줄 것이다.

施肥量은 자람에 따라 增施할 것이며 開花結實하게 되면 인산과 칼리질 거름에 치중할 것이며 윗거름으로 人糞尿, 黃安등을 준다.

施肥하는 방법과 거리 역시 자라감에 따라 다르게 해야 한다. 큰나무를 옮겨심으면 2~3년간은 開花結實의 성적이 나쁘다.

3、收穫·調製

定植후 보통 7~8년만에 開花結實을 하게되지만 從來式으로 심으면 生育과 開花結實이 늦어지는 경향이 있지만 苗木을 심을때 바와같이 노력과 경비가 다소 들더라도 깊고 넓게 파서 밑거름을 주고 심으면 뿌리발육이 잘되어 生育이 왕성하여 結實期가 빨라지는것이다. 가을에 열매가 빨갛게 익으면 이것을 수확하여 살짝 찌거나 그대로 씨를 받은후 果肉만을 햇볕에 말리어 조제 저장한다.

乾材는 윤택하며 살이 많으며 酸味가 많은것이 우량품이다.

定植후 7~8年生은 1주당 열매의 수량이 말린것으로 600~120g에 불과하지만 20매년 수량이 증가되어 30년 후에는 生育狀態가 좋은것은 주당 24~30kg정도를 수확할수있다.

自然生採取 (연재)

천남성 (天南星)

○과 명=천남성과
○속 명=사두초
○약용부=근경
1、기본: 우리나라 산 음지에 자생하는 다년생풀이다.
2、생장적지: 깊은 산속이나 숲속의 습기가많은 지대에 잘 자란다.
3、특징=암컷과 수컷이 다른 포기로 되어있는 풀로서 암 포기는원줄기의 끝에 통모양으로 생긴대서 둥근편인 육수 즉 이삭이 나오고 숫포기는 2~3개의 구릿대를 갖고 있다. 5월경에 잎겨드랑이에서 자색 또는 녹색의 꽃이 핀다. 꽃은 가을에는 원추형의 과실이 많이 달리어 익는다. 외피는 회갈색이고 내부는 백색이고 맛은 매웁고 미숙한 것을 먹으면 독이 있고 완숙한 것은 독이 없다.
4、채종: 잘 익은 과실에서 채집한다.
5、파종: 씨앗을 채취하는 즉시 파종하거나 3월경에 파종한다.
6、채취: 가을부터 겨울 사이 뿌리를 캐낸다.
7、조제: 캐낸 뿌리는 물에 씻어서 햇볕에 말린다.
8、이용: 안면신경마비증 종기등에 사용한다. 또는 물집이 생겼을 때에는 생즙을 내어서 바르면 신기하게 낫는다. 거담, 진경, 진통, 해외수출품.

백하수오 (白何首烏)

○과 명: 여뀌과
○속 명: 새박뿌리은조롱
○약용부: 뿌리
1、기본: 산과 들에자생하는 여러해살이 덩굴풀이다.
3、특징: 덩굴은 3m이상 자라며 잎은 심장형이고 꽃은 가을에 맑고 흰 빛을 띤 원추형의 작은 꽃이 피고 뿌리줄기가 땅속으로 뻗고 그 끝에 감자모양의 알뿌리가 달린다.
4、채종: 야생지로부터 분주 번식시킨다.
5、파종: 3~4월경분주 파종한다.
6、채취: 늦가을 줄기와 잎이 누런빛으로 변할무렵에 뿌리를 캐낸다.
7、조제: 채집한 뿌리를 일단 물에 씻고 삶아서 햇볕에 말려 제품으로 한다.
8、이용: 자양강장제로 사용한다.